

# 나무의 靈과 祭祀

任慶彬 박사

(農博·서울農大 교수)

서울과 仁川사이의 高速道路가 設計될 무렵 높은 어른들이 그 코오스를 踏査하는 도중 老齡의 소나무숲으로된 某村의 城隍堂을 볼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들 소나무의 大部分이 힘이 빠지고 病色이 完연하였기에 기운을 주고 生氣를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 本人에게 그 処置를 의뢰해 왔었다.

어느봄날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同伴해서 나들이 겸 그곳을 찾았는데 소나무주의 被害가 대단히 심했고 그밖의 理由는 찾기 어려웠으며, 老齡이라는 不利한 生理가 있었다. 또 소나무를 잘 손질하자면 몇몇 雜木의 除去가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후 어느날 우리들은 도끼, 톱, 살충제 등을 가지고 그곳을 다시 찾아 治病處置를 시작하고자 할때 그곳 동네사람들이 와서 이 城隍堂나무에 손을 대면 이 동네에 큰 災禍가 오게 되는데 그것정도는 알법한 사람들이 무슨짓들이냐고 하면서 大怒했다. 그것뿐 아니라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도 不吉하게된다는 바람에 나와 함께간 사람은 멈춰하고 이런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科學者라는 本然의 姿勢를 再確認해 놓고 洞里사람들을 理解시키기 위해 갖은 말을 늘어놓았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려야 복이 올것 아니냐고 설득하면서 處置를 단행하기로 하자, 洞里사람들도 初志가 꺾였다. 그러나 그들은 洞里를 위해서나 우리本人을 위해서나 事전에 떡과 술을 놓고 祭祀를 올리는 것이 좋을것이라 간청했다. 나는 이에 同意하고 市場에서 떡과 소주와 사과를 사서 祭官이 되어 敬虔하게 獻酌하고 俯伏하는 祭順을 치렀다. 同伴者가 巫獻을 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이 儀式을 구경만 하여도 좋지 않을거라해서 避身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儀式을 舉行하고나니 나도 마음의 부담을 한결 덜수 있었고 마음놓고 作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科學을 爲한 非科學이 아닌가 느껴진다.

다. 지금도 그때 祭祀는 잘 올린것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것은 科學하는 사람으로서 反省을 要하는 것일까.

昨年 일본 동경에 갔을때 어느친구집을 방문했더니 원래의 집이 헐리고 그곳이 停車場으로 利用되고 있었다. 20台 以上の 自動車의 固定駐車料는 좋은 月收入이라고 했다.

그런데 停車場의 한가운데 느티나무가 한그루 서 있었다. 원래 집옆에 이웃해서 자란나무라 줄기에 걸가지가 없고 키가 성큼커서 여름에는 특히 自動車를 덜어주는 陽傘같아서 좋을것으로 생각되었지만 駐車에 큰 支障을 주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아직껏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그 나무에 톱을 넣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재수없는 일로 돈벌기는 싫다는 것이고 두고두고 꺼림직한 일을 왜 할거냐 하는 그마음 때문이라 한다.

그러면 主人이 直接 作業하면 될것 아니냐 하지만 主人도 손을 대기는 싫다는 것이었다. 이제 좋을날을 擇해서 神官을 불러 木靈에 祭를 올리고, 이웃집의 사람들과 祭酬를 나누어 마시는 行事를 치루면 끊을 것이라 했다. 아직 이 儀式이 舉行되지 않았다는 편지사연이었다. 어려운 決斷같다. 결들여 물어본것이지만 초빙되는 神官에게는 相當한 謝礼金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다.

나무 특히 큰나무는 靈을 지니고 있어서 人間에게까지 상당한 作用을 한다는 생각은 여러나라에서 또 各時代에 이어서 存在했었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길가의 포플러街路樹 한그루를 끊는데 祭祀올리자는 뜻은 없지만 나무의 靈을 非科學의 이지만 存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것은 나 自身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것일까.

큰나무를 직접 끊어내는 불도저型의 新銳大型伐木機가 웅웅거리는 現代林業科學의 숲속에서도 이러한 斷面의 紋理를 쳐다본다.